‘참선 얼차려’ 시정 요구키로

군법사들 “용어 사용에 문제…불교 수행법 왜곡 우려”

최근 구타 언어폭력 등 군 가혹행위 때문에 군기사고가 빈발하면서 육군이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에게 참선으로 얼차려(기합)를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4월 16일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참선 얼차려는 가혹행위를 없애고 사병들의 정신 수양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참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울 수도 있다. ‘참선 얼차려’라고 하지만 스님들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화두를 들게 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진행되는 것은 불교 수행법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 군인들이 참선 얼차려 때문에 불교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육군의 참선 얼차려는 참선 얼차려를 일 · 이병에게 20분 1회, 상병 · 병장에게는 20분 2회 이하로 실시하고 있다. 상병과 병장은 군 생활 선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20분을 더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6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참선 얼차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포교원 담당자들은 “참선 얼차려로 군 가혹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얼차려가 결국 체벌 방법임을 고려한다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군단 쌍룡사 이웅규 법사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오히려 취지에 맞게 정신통일이나 정신집중 훈련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법사들은 이런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기로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참선은 정신 수양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불교계의 우려가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포교 바탕으로 복지·문화사업 펼 터”

인터뷰 진각종 새 통리원장 회정 정사

4월 20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열린 제 342차 정기종의회에서 진각종 제 27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회정(悔淨 · 서울 밀각심인당 주교) 정사.

회정 정사는 “진각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며 “포교를 근간으로 복지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정 통리원장의 취임식은 5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포교사 양성과정 재점검 前 집행부 사업 계승 대북교류 적극 추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진각종 통리원장 선거에 관심 갖고 지켜봐준 불교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각종이 명실상부한 ‘밀교중흥종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국불교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27대 진각종 통리원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종교의 가장 높은 가치는 포교입니다. 포교를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교육원장과 의논해서 교역자 양성과정과 신교도 포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재점검할 생각입니다.

또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대북사업과 사회와 직접 만나는 복지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단 정사님들의 뜻을 모아 불교발전과 종단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01년 진각종 총무부장을 맡으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북교류 등 국제사업과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불교계 내외의 기대가 큽니다.

–진각종은 한국불교 내에서도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단입니다.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단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제 불교는 부처님 법을 믿는 단계를 지나 알고 실천하는 단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정체성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각종만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불교를 생활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선소감에서 前 집행부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업무를 계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각종의 가장 큰 문제는 통리원장이 새롭게 선출되면 그동안 추진된 업무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선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모두 계승하겠습니다.

▲그동안 출가승 제도와 불상봉안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단내부에 일정정도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상봉안의 경우 현재의 심인당 구조에서는 어렵고, 건물을 전통양식으로 건립한다든지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불상봉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조차도 지금은 진각종도들의 대세를 이루지 못하기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출가와 재가를 나누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만 종단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의 통리원장 선출방식… ‘콘클라베’와 유사

진각종 통리원장 선거과정이 가톨릭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돼 비교가 되고 있다.

진각종은 대정사 대전수 품계를 받은 전원이 통리원장 후보자가 된다. 가톨릭의 경우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모두 교황 후보자이다. 출마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모두 후보자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투표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비슷하다. 정견에 따른 투표라기보다 그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각종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통리원장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통리원장을 뽑는다. 교황선출 방식과 비슷하다. 강유신 기자

자연-인간 공존하는 월정사로

5월7일 전나무 숲길 시멘트포장 제거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사찰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월정사 일주문부터 월정사 구 주차장까지 전나무 숲길에 깔려 있는 시멘트 포장을 걷어낼 뿐 아니라 ‘숲 속 도서관’을 조성한다. 지난해 월정사 상원사 간 446번 지방도로 포장을 거부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월정사는 5월 7일 오전 10시 월정사 및 상원사에서 열리는 ‘제2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에서 오랫동안 전나무 숲길의 숨통을 눌러왔던 포장을 제거한다. 걷기대회에서는 또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20여리 흙길을 묵언으로 걸으면서 길가에 핀 나무와 꽃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행사도 함께 펼친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의미도 함께하는 이 대회에서는, 평창군민 108명이 전나무 숲길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삼보일배를 하며, 108m 현수막에 유치기원문 적는 행사도 열린다.

전나무 숲 1500여 평 부지에 조성되는 숲 속 도서관은 월정사 방문객을 위한 명상과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곳에서 때로는 작은 음악회가 때로는 시 낭송회가 열리며, 가끔 어린이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다담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남동우 기자

한불부인회 “연등 만들어요”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가 4월 21일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개최한 한불부인회 연등만들기 체험행사에 레바논 대사 부인 제나 램말(Zeina Rammal) 여사 등 모두 38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참가해 연등을 만들고 있다. 한불부인회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불어권 국가의 외교관 부인들을 비롯해 상사 은행 등의 지사원 부인과 불어를 구사하는 한국여성들로 구성된 문화교류 목적의 친목 모임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5월중순 실시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5월 중순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또 조사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판결에 따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는 4월 22일 오후 2시 양측의 전문가 14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천성산 환경조사의 구체적 방안과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최종 서명은 5월 6일에 할 예정.

합의서에 따르면 14인의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며, 분야는 구조지질, 암반공학, 지하수,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등이다. 또 조사범위는 과거 조사내용을 기본으로 문헌조사, 습지주변 시추조사, 생태계 조사 및 분석 등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천성산 대책위 대표 지율 스님은 “전문조사업체가 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조사실시에 합의한 만큼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신계사 복원 본격 재개

5월3일 남북공동 발굴조사 착수

4월 29일 금강산에서의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신계사 복원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조계종 신계사 복원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 · 불국사 주지, 이하 추진위)는 4월 19일 추진위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복원일정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첫 사업으로 4월 26일부터 금강산에 연등을 설치해 29일에는 신계사 현지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정 스님과 현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진행한다.

또 5월 3일부터는 조계종과 조불련이 합동으로 만세루와 산신각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불련 소속 발굴조사단은 지난 21일부터 금강산 현지에 도착해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2차 추진위회의에서는 추진위 체계를 일부 조정해 현재 130명 중 20여명 내외의 스님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110여명의 스님들은 모연위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만세루 등을 복원할 도목수로는 지난해 대웅전 공사를 담당했던 최현규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올해 예정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 종교인 300여명 결의문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300여 종교인들은 4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 대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종교인들인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60명의 사형수들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그들 또한 생명존중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형폐지 및 법령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유철주 기자

낙산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음기도 성지며 관동팔경 명승지 중에 하나인 천년고찰 낙산사의 재난에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웠습니까?

저희 낙산사 대중은 이제야 큰 충격에서 벗어나, 수행이 부족하여 화마를 막아내지 못한 것을 엎드려 참회합니다.

저희 대중은 가슴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수많은 국민과 신심 깊은 불제자 여러분들을 접하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한 몸, 한 뿌리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낙산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중은 여러분 마음에 남은 옛 모습 그대로 소박하고 아름답고 기도하기 편안한 도량으로 복원하는데 금생에 성불을 미루고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특히, 낙산사의 심장인 원통보전만큼은 정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기둥 하나, 기와 한 장까지 국민 여러분의 동참으로 복원하여 누구에게도 고향집 같이 포근하고 정겨운 법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화마가 훑고 간 30만 평의 낙산사 산림은 국민 여러분들이 한 그루씩 심어 일구는 뜻 깊은 마음의 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심이 성지라는 금언을 다시 절감합니다. 도량이 거의 전소되는 재난 중에도 일찍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께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홍련암은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을 보면서 어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믿지 않겠습니까?
낙산사 복구를 헌신해주신 민, 관, 군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낙산사 대중은 '눈앞에 길이 있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낮에는 삽을 들고 땀흘리며, 밤에는 뭇 생명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낙산사 복원이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생의 씨앗을 심는 복밭이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정념 합장